

요즘은 누구나 튀려고 한다. 그러나 우직하게 때론 자신에게 만족할 줄도 알며, 평범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도 있다. 25시를 뛰는 사람들은 그러한 평범한 속에 보이지 않는 비범함이 있다. 그것이 그들만의 개성인지도 모른다.

최선을 다하는 삶, 바로 여기에 행복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일궈서, 평범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삶을 건강하게 가꿔가고 싶습니다.”

경북 포항시 오촌읍이라는 시골마을 조그만한 빵집에서 17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험한 세상에 첫발을 디뎠던 '경상도 사나이' 강호문(31) 씨. 그는 이제 어엿한 중견 기술인이다. 어디에 가도, 누가 뭐래도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르다.

그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동네 친구의 소개로 한 제과점을 알게되고, 그 촌마을 빵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전까지 그는 많은 일을 해보았다. 선반일, 배달일 등 당장 생계가 급했다. 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삶에 대한 치열함을 더해주었다. 그러나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그의 성격 탓에 큰 부침없이 살아올 수 있었다.

4년간의 시골 빵집 생활을 마치고 우물안 개구리가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을 맞볼 수 있었던 곳이 부산 광복동 뉴욕제과였다. 그는 거기서 당시 과장으로 있었던 김동욱 씨를 만나 그의 삶에 일대 전환점을 맞는다. 김동욱 씨는 특수빵 부문 수상경력자로 신참내기인 그에게는 하늘같은 존재였다. 그곳에서의 1년 반이 지나고 김동욱 씨는 그에게 서울의 한 제과점 구인광고를 소개한다.

“새 가족을 찾습니다”

구인광고의 “새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난 탓도 있었지만 그해 있었던 어머니의 죽음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그리움으로 다가오도록 만들었다. 물론 서울의 발전된 기술을 배우려는 욕심도 없진 않았다. 결국 광고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대로 다이얼을 돌리고, 20세 되던 해, 마침내 그의 젊은날의 도전은 시작된다.

서울은 어린 시골 촌뜨기의 접었다는 도전에 미소짓는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 한 말인가? 바로 나폴레옹이 한 말이다. 그가 서울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곳도 바로「나폴레옹」과자점이다. 그는 거기서 채형일, 박상은 씨등, 훌륭한 선배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는다.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를 했던 사람도 당시 차장으로 있었던 채형일 씨였다.

나폴레옹과자점 입사후 그는 많은 기대감을 안고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지만 그곳의 엄격한 규율이 어린나이의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적도 있었다. 당시 나폴레옹의 소위 ‘군기’라는 것이 군대의 그것보다도 매우 엄하였다고 하니 그의 배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과히 짐작하고도 남음이이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제가 24세 되던 해였을 겁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하루는 가마에다 빵을 굽는 과정에서 그만, 일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주문은 줄을 잊고, 정말 정신없었죠. 저는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빵주임님은 그러는 제가 한심했는지 얼떨결에 주먹을 날려왔습니다. 전 가슴을 한 방 얻어맞고 바닥에 데굴데굴 굴러버렸죠. 눈물이 핑 돌더군요.

◀ “음 좋군. 바로 이 맛이야”

피터팬

강호문

공공장



어린 나이에 객지생활하는 저로서는 정말 못 견디게 서러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슴이 아프도록 서러울 때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리라. 그도 그랬다. 그동안 타향살이의 설움이 한 순간에 복받쳐 온 것이다. 그렇다고 밀리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하루 일과를 모두 끝내고 그는 아무도 없는 건물 뒤편으로 가서 고향을 생각하며 한참을 울었다. 그런데 이제 웬일인가. 그에게 일격을 가했던 빵주임이 나타난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부둥켜 안고 또 울었다.

그 무시무시한, 그러나 정 많은 빵주임이 바로 박상은 씨이다.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박선배님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함께 고민해 주는 저의 정신적 지주이죠. 물론 채선배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두 고마운 분들입니다.”

많은 현장경험이 기술축적의 지름길

그의 친구들은 거의가 자영업업을 한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현장경험을 쌓기위해 지금의 공장장 생활에 만족한다. 이것만이 기술축적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는 9년만에 공장 책임자의 길에 들어섰



다고 한다. 한 조직의 관리자로서 고객을 부르는 맛있고 질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그의 발걸음은 쉬지 않는다. 1년에 2~3번은 일본에 간다. 기술을 배우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는 눈을 넓히기 위함이란다.

“보통 일본방문을 사장님과 동반합니다. 사장님의 지원이 대단하죠. 기술축적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일단, 일본에 갔다하면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씩니다. 얼마 안돼는 방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죠. 그러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다가버립니다.”

그는 세미나를 유용하게 활용한다. 세미나에서 배워 온 제품을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직접제작 과정을 거쳐 기술을 축적한 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특성에 맞게 응용할 줄 알아야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이 바로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적 노하우를 쌓는 비결이라고 귀뜸해준다. 또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응용범위와 보는 시각을 넓힐 것을 강조한다. 크게보면 이러한 것들이 쌓여 제과 기술인들의 위상을 확립하고 베이커리업계를 발전시키는 길임은 분명하다.

그가 느낀 일본의 베이커리점포들은 빵맛의 변화가 심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력이동이 심해서 ‘이 집 하면 이 맛이다’라는 인식이 약하고, 빵맛의 변화가 심한 것이 우리 베이커리업계의 최대 약점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주와 기술인 간에 가족적이고 인간적인 유대관계와 형성돼야 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감안, 제품의 꾸준한 기술적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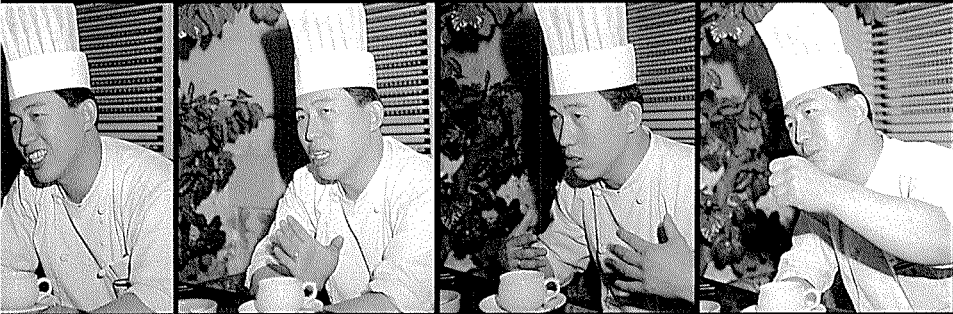
대전선우회 활동 통해 정보마인드 확립

그는 모두 7개의 모임에 참가한다. 그중 지난해 그가 총무를 역임했던 ‘대전선우회’란 모임이

게서 전화가 오면 부동자세로 받는다. 선배들은 그만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고 한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없진 않지만 베이커리 기술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난 행운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는다. 그는 후배들에 대해서도 “하러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후배들로서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습니다.” 라고 마치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는 듯했다.

최근 베이커리 업계의 젊은층 사이에 일고 있는 3D기피현상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렵거나 고통스런 일이 있으면 헤쳐 나가야 한다. 그래야 경험이 쌓이고 인생을 관조하는 원숙함이 생긴다. 피하거나 빗겨 나간다면 결국 속빈 강정같은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최종 기착지인 죽음은 피할



가장 크다. 나폴레옹 출신 기술인들을 주축으로 91년 결성되었으니 올해로 만 5년됐다. 회원수는 모두 23명이고, 선배층, 중간층, 후배층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다. 회장은 올해 새로이 선출된 조순익 씨이다.

“대전선우회의 가장 큰 특징은 참석률이 거의 100%라는 점입니다. 또한 입회절차도 무척 까다롭죠. 일단 입회하려면 회원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만 거부해도 입회가 취소되죠. 또한, 연 4회이상 모임에 불참하거나 연속 3회 없나오면 회원자격이 박탈됩니다. 현재, 대전선우회는 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세미나 개최와 신제품 개발 등의 일을 하죠.”

그는 베이커리 업계의 중견 기술인들로 구성되어있는 대전선우회활동을 통해 상호 정보교환이라든지 업계발전을 위한 활동-연과업체 탐방, 업계 선배초청간담회, 인테리어 강좌-등을 도모한다.

얼마전 있었던 기술세미나에 참가해 본 기자는 그들의 많은 참석률과 진지함, 그리고 간단한 뒤풀이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술좌석에서 조차 모임의 발전을 위해 토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미나가 줄고 있는 업계현실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다.

명장 밑에 명졸이 있듯이...

그는 친구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바쁜 일정 때문에 친구와 술한잔 할 시간조차 없다. 그래도 자신은 정 많고 눈물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겸연쩍어 한다. 그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안다. 때문에 선후배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명장 밑에 명졸이 있다.” 라고 그는 말한다. 이는 훌륭한 선배 밑에서 좋은 후배가 나온다는 말이다. 어찌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암시가 있는 듯하다. 그는 아직도 선배에



▲ 틈틈이 후배들에게 제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죽음은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이상의 것이다.

“당장 물을 따라 먹을 컵은 없지만 깨진 컵은 있다. 그 깨진 컵을 다시 부쳐서라도 물을 따라먹는다.” 이것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의 고집스러움이다.

잠실 나폴레옹시절, 하루는 직접 종업원을 뽑기 위해 한 여자 지방생을 면접하는 도중, 서로 나뉘던 첫인상 덕분에 그것이 인연이 되어 5년동안이나 연애를 하고, 이제는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강호문 씨.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회의감이 들 때, 밖으로 나가 맑은날 하늘에서 찬란히 빛나는 태양 한번 바라보면 가슴 속이 확 풀린다며 밝게 웃음짓는 그의 얼굴에서 바로 우리 자신들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본다. [O] <글/강영주>